

#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확대

### 임실군, 논콩 등 두류 확대 및 수매장려금·농기계 등 지원 사업 신청 ... 동계작물 3월 말까지, 하계작물 5월 말까지

임실군이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콩 등 전략작물에 대한 직불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5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첫 시행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불금이다.

올해부터는 대상 품목이 기존 논콩에서 쌀을 포함한 두류로 확대되고, 하계작물 대상 품목에는 옥수수가 신규로 추가됐다.

하계조사료 지급 대상 농지도 확대

됐다. 특히 두류와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도 지난해 1ha당 100만원에서 올해에는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또한 동계작물 밀 또는 조식료와 하계작물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ha당 100만원을 추가해 총 350만원을 지급받는다.

특히 국비와 별도로 군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억30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약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업(법)인 및 작목반에 콤바인 등 콩 전용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논콩 및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확대를 위한 타작물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60만원/ha당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논콩 생산장려금과 더불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수매한 농가에 수매장려금을 150만원/ha당 지원할 예정이다. 이모작으로 논콩을 재배할 경우 군비 포함 총 560만원/ha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168ha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 이상을 논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 확대 및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군 자체 예산까지 추가지원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논콩 전문 생산단지 확대를 위해 군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등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4일 곤충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남원시, 곤충산업 발전 협약 체결

### 전북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협력

남원시는 지난 4일 곤충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유)영인바이오, 주)죽이아기, 유)씨엘에프엔비, 나라이오(주) 등 7개 기관단체·기업체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와 7개 기관단체·기업체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기본계획·생산기반 등) 지원 △곤충산업 기술 자문 및 정보교류 활동 △곤충식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연구, 관료화보 지원, 일자리 창출 △곤충자원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 구축 등 남원시 곤충산업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24년에도 업무협약을 통해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2024~2026년은 곤충산업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관료화보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협약기관 및 자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곤충 가치발굴과 홍보마케팅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곤충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바이오소재, 메디푸드, 펩푸드 등 여러 분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 되새겨

순창군이 지난 1일 3·1 운동의 위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순창을 향토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정기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및 보훈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로 행사장인 향토회관을 가득 메워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기념공연은 전주판소리합창단의 퓨전판소리합창곡인 '꿈아, 신사철가, 아름다운 나라' 공연을 선보이며 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고, 우리 민



순창군이 지난 1일 3·1 운동의 위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의 퓨전판소리합창곡인 '꿈아, 신사철가, 아름다운 나라' 공연을 선보이며 독립만세운동을 재조명하고, 우리 민

족의 아픔을 들려주고 동시에 광복을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를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읍 3·1 동산에서 '3·1절 기념식'

###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임실군이 지난 1일 임실읍 3·1 동산에서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심민 군수, 이성재 의장, 남궁세창 교육장과 독립유공자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기관사회

단체장, 공무원 및 주민, 군인,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분향을 시작으로 국민 의례, 기념사, 만세삼창 등을 통해 3·1절을 기념했으며,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해 태극기를 전달하고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만들었다.

심민 군수는 "오늘 우리는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된 3.1운동을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에서 서 있다"며 "훌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오늘의 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자랑스러운 임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운양면에서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주관으로 200여 명이 참석하여 현영대 열사를 추모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시청 강당서 청렴남원 캠페인 진행

남원시는 4일 소동 혁신의 날을 맞아 시청 강당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남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시 청렴·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금품·향응·편의 제공 금지 △갑질 및 을질 근절, △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 청렴의식 함양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 감사실, 행정지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남원시는 △차제 청렴도 평가를 통한 정확한 취약점 진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제도와, △실용적인 청렴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 △지속적인 청렴활동 홍보 등을 통해 청렴 제고도를 높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이성근 감사실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만큼, 생활화하여 청렴한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추진

남원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의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 테이블 지원 등에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자로, 식서류 취급 음식점이 아닌 주점 형태의 음식점,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현재 입식 테이블 설치 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및 제출 양식을 3월 22일까지 시 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한국의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김보상 보건지원과장은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통해 영업주는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객에게는 편안한 공간 제공으로, 위식문화 만족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청렴 실천 반부패·청렴 교육 개최

순창군이 4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 주재하에 진행된 이번 강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직장 내 갑질과 근절 방안,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갑질 금지 규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법규 준수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부패와 취약한 업무 분야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